No.57

Japan Weekly Digest

2010. 10. 16 ~ 10. 22

☐ 금주의 이슈
- ◦ 일본정부, 20개월 만에 경기 하향 조정
- ◦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오픈, 17개 도시 운항
- ◦ 한전·스미토모, UAE아부다비 대형발전소 건설 수주
- ◦ 한국인삼공사, 건강식품으로 일본시장진출

☐ 일본 정재계 소식
- ◦ 정부,「엔 국제화」연구회 설치 발표
- ◦ 경단련,「국내투자촉진프로그램」조기 실시 건의
- ◦ 정부, 국가전략실 재편강화 발표

☐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- ◦ 경산성·국토성, 대규모 태양광발전 규제완화 발표
- ◦ 경산성, 민관합동 물 펀드 설립
- ◦ NEDO, 프랑스와 스마트그리드 사업공동 실시
- ◦ 도요타, 엔고 등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국내생산 유지 방침

☐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- ◦ 일본의 외환정책 딜레마 (FT,2010.10.15)

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je.or.kr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일본정부, 20개월 만에 경기 하향 조정

- 일본정부는 19일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경제가「정체 상태에 있다」고 20개월 만에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

· 간 총리는 "중국 등 아시아경제도 둔화되고 있고,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 때문에 정체되고 있다"고 언급

· 내각부가 월례 경제보고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**일본 경제가 정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2008년 7월 이후 처음**

○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오픈, 세계 17개 도시 운항

-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21일 오픈

· 오는 10월 31일부터 **국제정기편을 32년 만에 부활**. 美, 유럽, 아시아 11개국, 17도시로 운항될 예정

· 도쿄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하고, 50여개 국내노선으로 연결된다는 이점을 살려 24시간 운영하는 국제허브공항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전략

* **아시아최고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**

○ 한전·스미토모, UAE아부다비 대형발전소 건설 수주

- UAE 아부다비정부가 발주 예정인 대형화력 발전소를 한국전력과 스미토모상사가 건설, 운영을 맡게 되었다고 18일 닛케이에서 보도

* 총사업비는 1500억 엔, 운전가동은 2013년 예정

· 아부다비정부가 한국전력·스미토모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, 160만kW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·운영할 예정

· 닛케이신문은 이번 한·일 연합에 의한 신흥국 시장개척은 새로운 한·일 협력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

○ 한국인삼공사, 건강식품으로 일본시장진출

- 산케이신문 경제사이트인 SankeiBiz는 18일, 한국인삼공사가 내년에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보도

· 고려 인삼을 원료로 일본에서 판매할 상품을 공동개발하거나, 일본회사와 판로 확대 등 일본의 유통업체와 교섭 중

* 현재, 세계10개국 78점포를 운영 중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정부,「엔 국제화」연구회 설치 발표

- 가이에다 경제재정상은 17일, 중장기적으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부에「엔 국제화」연구회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

· 엔화 거래를 늘려 **달러, 유로 등 국제적인 기축통화로**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
· 경제재정상 "엔고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,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. 일본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엔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"라고 언급하면서 연구회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

○ 경단련,「국내 투자촉진 프로그램」조기 실시 건의

- 경단련은 18일, 일본정부가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집행예정인「국내투자촉진 프로그램」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건의

· 국내생산이 정체되고, 해외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"향후, **5년 내에 60조 엔의 국내수요와 300만 명 고용이 상실"**될 것으로 추산.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
·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5%정도 인하시켜야 한다고 강조
· 경단련은 18일, 제안 내용을 총리관저에서 개최된「제2회 국내투자추진회의」(의장: 오하타 경산상)에 제출

○ 정부, 국가전략실 재편강화 발표

- 겐바 국가전략상은 19일, 국가전략실 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을 발표

· 예산편성방침 등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는 조정팀과 총리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제언팀(2개 팀)으로 개편
· 지금까지는 관방장관이 중요한 정책을 조정해 왔으나, 2개 팀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내각전체의 정책수행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
· 조정팀은 예산편성방침, 중장기 경제운영, 성장전략, FTA, 환태평양 연계협정(TPP) 등을 담당. 제언팀은 외교문제에 중점을 두고 총리를 보좌

* 스텝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재무성, 경산성 심의관급 2명을 배치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○ 경산성·국토성, 대규모 태양광발전 규제완화 발표

- 경산성과 국토성은 17일, 지구온난화대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대규모 태양광발전 전용설비를 설치할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
  - · 4미터가 넘는 구조물은 건축기준법 규정을 지켜야하나,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면, 건축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
  - ·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태양광패널을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규제완화로 태양광발전 설비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

○ 경산성, 민관합동 물 펀드 설립

- 경산성은 노무라증권, 국제협력은행, 호주의 투자펀드와 공동으로 물 비즈니스에 집중 투자하는「물 펀드」를 내년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발표
  - · 펀드를 활용,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외국의 물 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유럽의 "물 메이저 기업"과 대항하는 것이 목적
  - · **물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펀드는 세계최초**이고, 자금규모는 1000억 엔을 목표
  - · 종합상사와 엔지니어링회사가 공동으로 해외 물 처리회사를 매수하거나, 신흥국에서 상하수도 부설, 정수설비 제조 등 물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할 방침

○ NEDO, 프랑스 자치단체와 스마트그리드사업 공동 실시

- 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(NEDO)는 18일, 프랑스 자치단체와 사회시스템인「스마트그리드 커뮤니티」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
  - · 3개월간 사전조사를 거쳐 2011년부터 5년 동안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
  - · NEDO가 스마트그리드분야에서 해외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(뉴멕시코주)에 이어 2번째로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전략

○ 도요타, 엔고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도 국내생산은 유지

- 도요타 사장은 급격한 엔고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강조
  - · 일본은 "**법인세율이 높고, CO_2배출량 감축의무도 엄격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일본에서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**. (한국 등 외국기업과) 경쟁상대가 되질 않는다"며 "도요타마저 국내생산을 감산하게 되면 일본이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"고 언급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"일본의 외환정책 딜레마" (FT,2010.10.15)

▷ 일본 외환정책 딜레마

○ **간 총리는 13일, 중국과 한국에게 환율문제에 "책임감 있게" 행동하라고 촉구**

· 환율정책이 11월, G20 정상회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. 간 총리 발언은 일본이 엔화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겨 두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

○ **하지만, 노다 日 재무상은 15일 "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"고 밝혀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**

· 엔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G7이나 G20 회의와 '관계없이' 이뤄질 것이라는 노다 재무상의 발언은 매우 흥미로웠음

▷ 해결이 어려운 환율문제

○ **일본은 9월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, 엔-달러가 15개월 이래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. 지난 14일에는 1995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**

· 외환시장은 일본이 다시 시장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. 일각에서는 개입 조치가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, 노다 재무상의 발언이 시사 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G20 개최시기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

○ **일본은 한국의 시장개입을 비난하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자국의 개입조치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음**

· 노다 재무상은 9월의 시장개입은 변동성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지, 엔화가 경쟁우위를 갖도록 엔화 가치를 낮추려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

▷ 일본경제, 엔화강세로 인해 경기회복 지연

○ **일본은 수출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위협받고 있고 엔화강세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. 또한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내수 경기도 하락**

· 맥쿼리증권은 현재 환율 수준이라면 일본이 몇 년간 침체기에 들어설 가능성. 엔·달러 환율이 75엔까지 떨어진다면 일본경기는 위축될 것임

○ **전문가는 일본의 환율개입은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**

· 시장개입으로 수출업체의 결산시기인 9월말 직전, 결정적으로 엔화가치를 떨어트렸음

-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엔·달러 환율이 현재 79엔에 달했을 것(닛코자산운용)

▷ 시사점

○ G20에서 환율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타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

*출처: FT(2010.10.15)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(1) 『2010년 세계법인세·간접세조사』 KPMG, 10월 19일
*출처:http://www.kpmg.or.jp/resources/research/r_tax201010.pdf

(2) 『Cross Border 제휴와 시장경쟁』 경제산업연구소, 10월 19일
*출처: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0e054.pdf

(3) 『세계적인 정책경쟁의 결말』 미즈호 종합연구소, 10월 19일
*출처:http://www.mizuho-ri.co.jp/company/info/viewpoint/20101018.html

(4) 『환경리포트 2010』 자동차공업회, 10월 19일
*출처:http://www.jama.or.jp/eco/wrestle/eco_report/pdf/eco_report2010.pdf

(5) 『국내 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제언』 경단련, 10월 20일
*출처: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0/089/honbun.pdf

(6) 『환경을 배려한 편의점』 경제산업성, 10월20일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shoryu/eco_store/005_05_00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10월 18일(월)	○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체결국회의 개최(COP10, 나고야) ○ 8월 산업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 ○ 9월 전국백화점 매출 발표(일본백화점협회)
10월 19일(화)	○ 10월 월례 경제보고 발표(내각부) ○ 일본증권협회회장 기자회견
10월 20일(수)	○ 9월 전국 편의점 매출 발표(일본프랜차이즈협회)
10월 21일(목)	○ 주요은행대출동향 설문조사 발표(일본은행) ○ 오카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기자회견 ○ **日하네다공항 국제선 오픈(세계 17개 도시 운항)**
10월 22일(금)	○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(한국 경주, 23일까지) ○ 9월 전국슈퍼 매출 발표(일본체인스토어협회) *** 인도 총리 26일까지 일본 방문(25일 일-인도 정상회담)**